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나탈리아 카리모바 타쉬켄트 동방학연구소 교수

몽골족이 세워 거의 100년간 중국 땅을 통치했던 원나라(1279-1368)는 여러 전쟁과 국내 분쟁, 그리고 몽골족에 대한 봉기를 수년간 겪다 1368년에 멸망하였다. 중국의 당시 실록은 <<원 왕조는 멸망했다. 각각의 통치 세력들은 고립되고, 더 이상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고 쓰고 있다. 새로운 중국 왕조, 명(明)의 황제로는 농민 출신인 주원장이 태조(太祖)라는 이름으로 등극했다. 明은 중국어로 <<밝다>>, <<빛나다>>라는 뜻이다.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대외 정책은 한(漢)과 당(唐) (618-907) 시기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중국과 동 투르키스탄 간의 대외 관계는 단절되었다. 명나라는 기원전 2세기 전한(前漢) 시기에 처음 시도된 대 중앙아시아 대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창건 이후 명나라는 즉시 왕권 강화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건국 초기 20년 동안 태조는 중국 내 토호세력을 예측시키는 일에 급급했다. 건국 초기의 내부 왕권 강화 정책은 대외정책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 건국 초기의 허약한 왕권과 멸망 이후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던 원나라 잔존세력의 끊임없는 위협 등은 명나라가 외국과의 국가 관계 수립과 유지에 힘들게 하였다.

14세기 중엽까지 외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거의 다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명의 새로운 황제는 서쪽 나라들과 관계를 수립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명 왕조가 창건된 이듬해에 중국 서쪽에 있는 나라들에 사절단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들은 외국과의 대외관계에 있어 중국 왕조의 존속 기간 대부분에 걸쳐 만들어 놓은 특별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의 황제는 다른 모든 통치자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통치자이다. 중국 황제 이외의 모든 통치자들은 중국 황제를 숭배해야 하며, 정기적인 조공 상납과 더불어 <<신하국>>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 조공 횟수와 조공 사절단의 인원수, 중국으로 향하는 길은 중국 정부에서 철저히 통제하였다. 외국 사절단이 황제를 알현할 시에는 일정한 의식을 거행해야 했다.

명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기적인 교류 관계를 맺을 즈음까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명 왕조의 체제는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명은 격변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 겨우 국가의 초석을 세우는 단계에 있었다.

왕위를 찬탈하여 황제에 등극한 명나라의 성조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사절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공자는 현명한 황제는 <<야만인들이중국에 와서 변하도록>>, 즉 중국 문화의우월성을 인정하고 더욱 순종하도록 자연스럽게 그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외국 사절단이 중국을 더 자주 오갈수록, 성조의 즉위는 피지배자들에게 더욱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성조 황제는 즉위 이후 무역 교류의 보호자로 나섰으며, 중앙아시아 민족들과의 접촉을 확대하였다. 그의 통치는 중국의 전형적 특성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띠었다. 명나라의 다른 황제들과는 다르게, 성조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확대하였고, 중국으로 오는 사절단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명나라의 다른 황제들은 보통 외국과의 상업적 교류를 제한시켰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성조는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명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공격적인 시기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명 태조황제 이전까지는 서역(西域) 등 지리적으로 먼 지역의 국가와 실제적이고 견고한 국가 간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티무르 제국의 통치자가 파견한 공식 사절단에 관한 기록이 태조 황제 때에 중국 문헌에 등장한다. 사절단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시기에 존재하였고, 중앙아시아 상업무역 사절단은 중국과의 무역 교류를 매우 원하고 있었다. 티무르는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무역 사절단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도리어 무역업자들이 과감하게 자신들을 공식적 사절단으로 스스로 칭하였고, 중앙아시아 통치자인 티무르에게서 수령하였다는 증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티무르가 중국의 황제를 상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티무르 제국 사이의 국가 관계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중앙아시아 통치자들은 중국과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은 거의 생활필수품으로 매우 긴요하였다. 명의 입장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은 이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명 왕조 초기에 황제들은 투르키스탄 국가들에 대해 "회유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초기 무역 거래는 <<조공(дары) - 하사품(вознаграждения)>>의 형태였다. 타국 사절단들은 중국 황제에게 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상품들을 중국 사람들과 교환하였다. 그리고 중국 황제는 조공에 대한 대가로 타국의 무역업자들에게 더 값비싼 하사품을 내렸다.

중앙아시아 국가 통치자들은 중국에 조공 방식을 통한 수많은 무역사절단을 조직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으로 많은 상품을 반입해왔다. 중국의 수도로 가는 길 도중이나 수도에서 사절단들은 중국 사람들과 물품 판매를 할 수 있었다. 즉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형태로 실제적으로는 무역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명 조정은 이러한 형태의 무역 교류 정례화를 인정하였고, 보통 수도에서 3-5일간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부분적으로 무기, 가위, 그리고 용과 불사조, 꽃무늬가 있는 옷은 교역 금지 품목이었다. 그리고 일부 중국 상품의 판매도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명 조정의 중앙집권 권력이 약화되었을 때, 사(私) 무역에 대하여 명 조정이 공식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무역사절단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피해나가

고자 노력했다. 밀무역은 상대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명나라 조정의 엄격한 규정을 이들은 준수하지 않았다.

서역으로부터 오는 <<진상품>>은 원칙적으로 2가지 유형이다. 이는 중세 외교의 일반적 관례로서, 실제적 용도로 쓰이는 10 마리의 말은 조공 형식으로 바쳐지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일반적인 상품용으로, 판매를 위해 중국으로 들여온 말이 있다. 중국 황제에게 <<조공>> 형식의 진상품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선물용으로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준비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사절단들은 가끔 위조 증서를 발행하면서 자신들의 진상품보다도 더 값진 선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들은 조공의 효용 가치를 인식하고서는 <<진상품>>을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목상의 <<조공>> 시스템은 한과 당 시기에 이미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매우 활발한 대외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당의 멸망 이후에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외 관계는 점진적으로 회박하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외국과의 대외관계에 있어 전통적으로 특별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중국은 중심 국가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조공국이 되었다. 중국의 황제는 다른 모든 통치자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통치자이며, 중국 황제 이외의 모든 통치자들은 그를 숭배하고 정기적인 조공 상납과 더불어 <<신하국>>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 조공 횟수와 조공 사절단의 인원수, 중국으로 향하는 길은 중국 정부에서 철저히 통제하였다.

일본의 중국 역사가인 와타나베 히로시의 연구 자료에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명나라의 <<왕조실록>>, 明史의 本紀(주요 연대기)에도 이 같은 사실이 부분적으로 기술되어있다. 중국의 <서역전>에는 왕조실록이나 본기보다 더 적은 자료만 남아있지만, 중앙아시아 사절단의 왕래에 관한 기록이 기술되어있다.

가끔 무역-사절단으로 이루어진 대상(帶商)이 중앙아시아 다양한 국가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문헌에는 중국 서부 지역의 공동 사절단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대체적으로,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 통치자들은 자체적으로 무역 사절단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명시'(明示) 332장에는 명태조인 홍무제(1368-1398) 통치 중엽에 사마르칸트에서 수백명의 사절단이 중국에 도착하는 광경이 기술되어있다.

부리예프(О. Буриев)와 콜가노프(К. Колганов)의 공동연구인 <<위대한 실크로드 지역에 관한 소고>>에서도 <<하피르-이 아브루의 역사>> (타리흐-이 하피르-이 아브루) 편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 사절단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사절단은 사마르칸트, 타시켄트, 몽골의 도시들, 투르판, 쿠물을 지나서 1420년에 중국의 수도에 도착했다고 되어있다.

투르키스탄 국가들의 특혜를 위해 명 조정은 그들 사절단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중국 국민들과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었다. 중앙아시아 사절단의 중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황제인 영종은 북쪽 지역에서 몽골이라는 거대 세력의 중립화 및 무력화에 힘썼고, 중앙아시아의 지방 권력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였던 것이다.

중국 조정의 그러한 우대 정책으로 중국 서부 지역으로부터의 대상 행렬이 줄을 이었으며, 상품을 운반하는 수레가 1백 개 이상 이르기도 하였다. 명나라 영종의 통치 기간에 중국의 무역은 큰 이익이 남았으며, 명나라시기에 중국과 서역 국가들과의 무역 교류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 티무르왕의 사절단은 중국으로 9번이나 왕래하였다. 1403년과 1449년 사이에는 사마르칸트에서 33회의 사절단이, 헤라트에서는 14회의 사절단, 그리고 기타 중국의 서부 지역에서도 중국을 방문하였다. 쿠틀루코프(M.Кутлукوف)는 중국 자료를 인용하면서, 사마르칸트에서 사절단이 1430년, 1437년, 1445년, 1446년, 1449년에 중국을 방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46번의 사절단이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사절단이 대거 왕래한 이 시기에 계속적으로 부닥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명나라 조정은 외국으로부터의 <<조공>>의 규모나 개인 자격으로 중국에 오는 사절단의 문제로 일정한 경제적인 곤란을 겪었다. 방문한 사절단을 대접하고 경호하고 답례품을 하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역(西域)에서 오는 사절단은 2-3천 명 정도의 규모였고, 6-9개월 동안 중국에 머물렀는데, 이들의 중국 체재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밖에, 중앙아시아 사절단과 통치자들에 대한 중국의 상품들은 선물의 질적 측면에서나, 상품 교환의 결과로서나, 최소한 15세기에는 명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기도 하였다. 대형 사절단에 속한 개인에게도 답례품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15세기 말에 이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명 조정의 비용은 상승되었다. <<조공-답례품>>이라는 전형적인 중국의 시스템이 초기에는 중국에게나 외국인에게나 상호 이익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당국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중국이 무역 관계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보아 중국인들에게 중앙아시아 지역의 상품들이 계속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마도 중국은 중앙아시아 사절단을 통해 중요한 경제, 군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명나라 황제에 진상된 중국 이외 지방의 모든 상품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집에서 양육하는 동물들: 말, 낙타, 양; 짐승 가죽: 모피, 담비; 양모와 목면 관련 제품: 펠트, 양모로 만든 가죽옷; 진귀한 동물류: 여우, 표범, 호랑이, 코끼리; 값비싼 약용 식물 및 재료: 사프란, 녹용, 영양 뿌, 세공물의 접착재료; 보석 등 귀금속류: 연옥, 벽옥, 금강석, 마노, 산호; 전통적 세공품: 검, 칼, 안장 등; 이외의 다양한 상품들: 안료, 유리, 청동으로 만든 종, 암모니아수 등.

투르키스탄과 중국의 주요 교역 상품은 말이었다. 예전부터 투르키스탄에서는 명마가 사육되었는데, 중국 황제들은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분지의 경마를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 경마들을 부르는 이름이 <<천상馬>>, 혹은 <<피땀을 흘리는 말>> 즉, 한혈마(汗血馬)로 불렸다. 중국 북쪽 지방의 경마는 ‘우순’과 ‘일리’로 불리고, 남쪽 지방의 경마는 <<얀치>>, <<혜준>> 등으로 명칭을 붙였다.

명 왕조는 중국 북쪽의 몽골족과 여진족 등 북방 민족들과의 군사적 갈등에 대비해 대량의 말 수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 중국 이외 지역의 왕조들은 중국으로의 경마 수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비정기적으로 소위, <<말 시장>>을 간조우, 양조우, 닝샤 지역 등에서 열고 있었고, 명의 세종 제위(1522-1566) 시기까지 이러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사절단과 무역업자들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상품 중에는 견사, 도자기, 유리식기, 차, 대황, 사향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기의 역사 문헌에는 이 같은 중국 상품들이 면밀하게 열거되고 있는데, 이 상품들은 외국인들의 수요에 의해 이용되었다.

중국에서 제조되는 일부 유명 상품들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와 제한의 조치가 있었다. 예를 들면, 명의 왕조실록에 <<차는 중국 이외 지역으로 유출이 금지된 생산품이다. 레이스나 다른 상품들은 교환이 가능한 품목들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황제의 칙령 이외에 투르키스탄의 도시들로 출장을 간 명나라 사절들은 대량의 값진 품목들(금과 은 식기, 도자기 등)을 반출하여 변방의 통치자들에게 선물하였다. 이밖에 이들은 많은 돈과 다양한 직위를 중앙아시아의 통치자들에게 선사하였다. 중국 문헌에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를 <<군-쯔이>>라고 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문자 해석에 의하면, <<조공-보상>>의 의미이다. 그러나 황제에게 바쳐진 진상품(дары)은 항상 신하와 영주의 관계를 의미하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그것보다는 이들 사절단이 답례품으로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기도 하였으며, 가끔은 자신들의 진상품보다 더 높은 가격의 선물을 중국으로부터 수령하였던 것이다.

투르키스탄의 도시들로 떠나는 명나라 사절들은 황제의 칙령 외에도 많은 값진 물건들(금과 은 식기, 도자기 등)을 반출하여 변방의 통치자들에게 선물하였다. 이밖에 이들은 많은 돈과 다양한 직위를 중앙아시아의 통치자들에게 선사하였다. 중국 문헌에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를 <<군-쯔이>>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공-하사품>>의 의미이다. 중국 문헌에서 한자로 <<군(貢)>>은 <<조공>>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황제에게 바쳐진 진상품(дары)을 항상 신하와 영주의 관계를 뜻하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이들 사절단은 답례품으로 값비싼 선물을 받았고, 가끔은 자신들의 진상품보다 더 값비싼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고 많은 현대 중국학자들이 말한다.

이미 말한 것처럼, 차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서역 국가들이 가장 원하던 상품 가운데 하나였다. 차는 기마민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생활필수품이었다. 이들의 주식은 고기인데 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이나 테인, 탄닌산과 다른 성분들은 소화를 돕

고 장기의 찌꺼기를 씻어주었다. 차 반출 제한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 투르키스탄에 대한 중국 황실의 정치적 수단이 되었다.

중국 관리들은 <<차>>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면 야만인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1만 명의 잘 훈련된 병사보다 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중앙아시아 무역업자들은 중국에서 많은 양의 상품을 자국으로 들여와 큰 이익을 남기며 판매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재차 중국으로 파견될 때는 더 많은 진상품을 가져갔는데, 이는 이 상품들을 중국 사람들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연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사절단의 방문 횟수와 규모는 날로 증가되었다. 1년에 한 국가에서 10번 정도의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전임들이 중국을 출발하지 않았는데도, 후임들이 도착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424년 성조가 죽자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먼 도시,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예를 들면, 성조 때 수차례 명을 방문했던 호탄과 카라코지(Караходжи)의 사절단에 관한 기록이 1424년 이후에는 <<명나라 역사>> (明史)에 없다.

사마르칸트는 황제 사후에도 약 15년 동안 계속 중국으로 사절단을 보냈다. 사절단 파견이 줄어들은 이유는 티무르 제국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었다. 1449년 폭동과 쿠데타로 울르그벡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당연히 먼 나라로 사절단을 보내기 어려워졌다. 동시에, 명나라 관리들도 중국 정부가 사마르칸트 사절단에 주는 답례품이 그들이 중국에 바치는 진상품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상기의 사건들 때문에 중국과 <<조공국>>의 공식적인 대외 관계는 끊어졌다.

중국과 다른 나라의 공식적 관계의 유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그래서 서역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은 중국 내부에서는 명나라 조정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 명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했다. 좋은 관계에서 사절단을 유치해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해야 했다. 그러므로 명 황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다.

(번역:정세진박사)

I. 서론

제국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약소민족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한다. 제정러시아도 표트르 대제 이후 공식적인 제국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국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미 16세기 모스크바공국 시기에 과거의 몽골제국이 지배하던 지역으로 한차례의 영토 확장에 성공했던 러시아는 로마노프 왕조 이후 표트르 대제 시기부터 러시아의 유럽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제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세기는 제정러시아의 외부 팽창의 절정기로 러시아는 특별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넓혀 나갔다. 러시아가 시베리아로 영토 확장을 시도하면서, 접경 지역에 있었던 중앙아시아도 자연스럽게 18세기 이후 러시아의 지배권 속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제정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몽골 제국이라는 중세 시대의 거대한 제국의 유산을 경험한 중앙아시아가 근대 시기에 일정한 부분 서구화된 러시아제국의 강력한 통치 체제에 흡수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 중앙아시아가 ‘칭기스 한’이라는 권위적이고 부족적인, 그리고 강력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던 아시아적 전제정치에서 러시아제국의 지배 이후에는 과거 몽골 제국이 남겨놓은 지배적 유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국가 체제가 발전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서구화된 러시아의 지배는 일정한 부분 중앙아시아 사회 내에 지적 엘리트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즉 이들이 중앙아시아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지식인이든,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반 러시아적 인식을 가지고 투쟁한 정치적 투쟁가이든, 혹은 이슬람 사제로 중앙아시아의 정신적, 영적 세계의 지도자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였든지 간에,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근대 시기의 특별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중세시기에 등장한 몽골의 유산은 차가타이 칸국의 지배로부터 기원한다. 차가타이 칸국이 중앙아시아에 남겨놓은 역사적 유산은 바로 오늘날 중앙아시아 민족의 형성과 분화 과정이 이 칸국 으로부터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즈베크와 카자흐 민족의 문화적 요소, 즉 정주문화와 유목문화의 분화 과정은 15세기 이후 각각의 민족 정체성의 특성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분화의 과정 속에 나타난 소위 ‘차가타이 정체성’은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개별적 분화를 의미한다. 즉 우즈베크보다 카자흐 민족에게서 종족의 충성도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공동의 칸국, 공동의 사회적 공간에 합류되어 있었던 민족 그룹들이 개별적 발전 과정을 거치나가면서, 18-19세기까지 민족들의 분화는 우즈베크 민족그룹과 카자흐 민족으로 분할되어 진행되었다. 즉 중앙아시아의 개별 민족들의 정체성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까지 지속적이고 연속선상의 국가적 특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를 거쳐서 러시아의 정복이 시

작되었고, 중앙아시아는 과거 몽골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근대적 유산을 가진 민족 그룹의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은 국가건설의 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역사를 통해 진행된 중앙아시아의 전체적 특성인 투르크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적 요소를 초월하는 새로운 국가적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각각의 국가 건설의 과정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국가들을 동일한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의 요소로 일괄적인 잣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몽골과 러시아의 제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각각의 개별적 요소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에트시기에 스탈린의 강제 집단 정책은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성과 유목문화 요소를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비에트 정책의 추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의 전체적 요소나 스탈린에 의한 집단화 정책 등은 유목 문화, 혹은 정원 문화라는 카자흐 민족의 전통성과는 매우 대칭되는 소비에트적 개념이었다. 중앙아시아는 몽골과 러시아제국의 역사적 유산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집결된 지대(地帶)이다. 중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공간은 앤서니 스미스가 언급하는 ‘민족적’ ‘족보(계보)적’ 요소가 총합적으로 이루어진 경계 지역이다. 라이팅은 문화의 3가지 형태를 인종적 특성(Ethnonationality), 종교(Religion), 씨족(족보)(clan) 적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인종적 특성은 공동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역사와 그 유산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종교는 독트린에 근거한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정체성이다. 씨족 정체성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반(半) 모더니즘 사회에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라고 설명한다.¹⁾

본 논고는 라이팅의 해석에 근거하면서, 씨족, 종족, 그리고 아직도 완전한 형태가 아닌 모더니즘 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몽골과 러시아의 역사적 유산이 중앙아시아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아시아 사회에 인종적, 족보적 특성을 중심으로 제국의 팽창 시기에 중앙아시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민족 문화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역사적 논증과 담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II. 중앙아시아와 몽골제국 -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점령 이전 시기

1. 차가타이 칸국의 분화 및 그 정체성

중앙아시아는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인가? 이 지역은 유목민족 제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역사적 공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핵심 지대로 중국과 유럽 간의 상업 교역의 루트로 이용되었으며, 매우 안전한 교역 통로였다.²⁾ 중앙아시아는 다양한 문화 양피

1) David Laitin, *Hegemony and Culture: Politic and Religious Change among the Yorub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ch. 1.

2) Andrew Philips and Paul James, "National Identity between Tradition and Reflexive Modernisation:

지의 흔적이 남아있던 지역이며, 민족들 간의 침략, 지배, 점령 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비록 이 지역이 투르크 민족이 지배적인 인구 구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질적인 민족 상호간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³⁾ 오늘날의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앙아시아의 핵심 민족은 우즈베크와 카자흐가 될 것이다.

몽골 제국의 시대에 총독 분할 통치제도에 의해 칸국으로 분열되었는데, 중국의 원나라 이외에 ‘칭기스 칸’의 전통적 가계로부터 새로이 전승된 주요한 칸국은 오늘날의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일칸국’, 러시아대륙의 ‘골든(金) 호르드’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등이었다. 특별히 15세기 몽골제국 쇠퇴기의 상황은 중앙아시아 민족 그룹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 시기가 몽골 역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기 때문이다. 몽골은 15세기에 러시아 평원의 새로운 강자인 무스코비(모스크바공국)에 밀려 현저히 세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러시아 남부에서의 과거의 강력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과거 몽골제국의 영토에는 15세기 이후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몽골의 전통적이고 세습적인 칸의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가계의 재배치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과거의 강력한 제국의 영토에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던 차가타이(Chagatay) 칸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몽골제국 내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유목국가였다. 이 칸국은 투르키스탄과 스텝 서부의 트란숙시아나 지방을 포함하고 있었고 제국 내에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같은 도시도 존재했으나 아직 정착화 되지는 않고 있었다.⁴⁾ 15세기에 들어 과거 몽골 제국 통치 지역에서의 유목민족제국사의 특징은 다양한 국가나 동맹체의 형식으로 과거 칸국이 분할의 과정을 거쳐 갔다는 점이다. 새로이 분화된 칸의 공동체는 왕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족 및 씨족 구성원의 행정과 정치 엘리트들의 정책을 통해서 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즉 민족 그룹은 분화되었다.⁵⁾

차가타이, 모굴, 체트(Chete) 등의 이름은 차가타이 칸국의 분리된 그룹의 명칭인데, 칭기스 칸의 둘째 아들인 차가타이의 후손들로부터 파생된 이름이다. 15세기는 중앙아시아 역사의 시기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분화된 민족 그룹의 인종적 정체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였다. 세계 제국으로서의 몽골의 위치가 약화되는 것과 동시에, 중앙아시아에서도 새로운 민족그룹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 발전

The Contradictions of Central Asia, *Nationalitis Papers*, Vol. 3, No. 1, 2001, p. 26.

3) A. Rashid, *The Resurgence of Central Asia: Islam or Nation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15-16.

4) 특이하게도 정복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는 유목 혹은 半 유목 생활을 하는 투르크족이었다. 몽골족의 원래 거주 지역을 제외하면 피정복 민족과 정복 민족이 동일한 전통을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지역이었다.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도서출판 펴내기, 1997, p. 123.

5) Beartice F. Manz, "Multi-ethnic Empires and the formulation of ident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6 No. 1 January 2003, p. 85.

과정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가타이 칸국의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정치적 투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즉 우즈베크는 아불카이르 칸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였고, 이에 반대한 자니 벡(Jani Bek), 케레이(Kerei)가 카자흐 민족을 이끌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이 각각의 그룹이 외부적으로 명백한 민족 국가의 의미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히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분리된 측면이 강하며, 정착문화와 유목문화 특성으로 구분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아시아에 끼친 몽골의 역사적 유산은 차가타이 칸국의 지배와 이후의 각 민족그룹의 분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몽골의 세계제국 으로서의 역사적 위치가 약화되면서 14세기에 시작된 몽골 계승 국가들의 분열 및 해체로 중앙아시아에서는 유목민의 대이동이 시작되었고, 15세기 초에는 투르크족 및 투르크화된 부족들이 카자흐와 우즈베크로 재편되어 개별적인 집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⁷⁾

그렇다면 차가타이 칸국의 정체성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14세기 중엽에 존재하고 있었던 차가타이 칸국은 영농 국가 전통과 유목민족 전통이 서로 갈등하는 불안한 나라였다. 이 중 정착 문화 및 영농 국가의 전통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구한 세력은 이슬람을 종교정체성으로 하고 지역적으로는 트란스옥시아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룹이었다. 즉 그 형식적인 통치 계층은 몽골족 출신이었지만, 실질적 세력은 투르크계가 차지하였는데,⁸⁾ 이 투르크계 가문들 중의 하나에서 1336년 티무르가 출생하였고, 바로 그가 ‘투르크-몽골’의 전통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즉 스텝 지대에서 정착 민족의 분할은 세계 강대세력으로서 몽골 세력의 종료를 의미한다. 또한 이에 덧붙여, 정착민족에 대해 위협적 존재로서의 유목민족의 전통적 역할은 이제 종식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⁹⁾ 여전히 몽골 전통의 영향력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티무르제국 시기에 이미 정착 문화의 유형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지배 유형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우즈베크와 카자흐 민족그룹의 문화 유형

전체적으로 차가타이 칸국 시기에 이미 유목문화와 정착문화 유형의 분할이 생성되었다. 우즈베크와 카자흐의 민족적, 국가적 형성 과정과 차가타이 정체성은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의 결정적 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차가타이 정체성의 핵심어는 ‘투르크’라는 용어이다. 이는 일종의 정착문화에 응용되는 의미로 전승되었다. 카자흐와 우즈베크 민족 그룹이 분화하기 이전, 중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철, “중앙아시아 주요 토착민족 공동체의 상이성 연구: 우즈베크 및 카자흐의 국가형성과정과 대체정리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2-2호, 2008년 여름, pp. 186-194.

7) 김상철, “중앙아시아 주요 토착민족 공동체의 상이성 연구: 우즈베크 및 카자흐의 국가형성과정과 대체정리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2-2호, 2008년 여름, p. 188.

8) 최한우, 중앙아시아연구(상), 서울:퍼네기, 2003, pp. 171-172.

9) 최한우, 중앙아시아연구(상), 서울:퍼네기, 2003, pp. 171-172.

양아시아 중세 시대의 패권 세력은 차가타이와 페르시아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고, ‘타지크’라는 용어는 지속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타지크는 투르크어권 그룹과도 구별되었고, 동시에 노마드 계통의 사람들과도 구별되는 용어였다. 타지크는 특별한 문화적 내포, 즉 인종적 페르시아인을 의미하였다.¹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 제기는 ‘우즈베크’와 ‘카자흐’라는 명칭은 어떻게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살아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 민족그룹의 분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역사적 전통성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정주 문화와 유목 문화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인데, 우즈베크와 투르크멘 민족은 과거 몽골 차가타이 칸국 후손의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정착화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이에 반해 카자흐 민족은 몽골 차가타이의 전통적 특성인 유목 문화의 유형을 강조하면서 이와는 다른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 두 민족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차가타이 칸국이 쇠퇴하던 시기인 15세기였다.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가를 이루던 과거의 ‘우즈베크’, ‘카자흐’는 러시아 남부 초원 지대의 동쪽에서 발원된 명칭이며, 원래 이 민족들의 공통적 가계는 칭기스 칸의 장자인 ‘주치’로부터 시작되었다. 차가타이 칸국의 분열기에 모굴(Moghuls)과 차가타이 사이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는데, 15세기 초에 차가타이 칸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주치였다. 바로 이 주치의 혈통과 전통을 이어받느냐에 따라 이 두 민족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즈베크와 카자흐 민족이 결정적으로 차이점을 가지게 된 것은 우즈베크는 중앙아시아의 맹주였던 주치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카자흐 민족은 주치의 혈통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16세기에 들어와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은 우즈베크와 카자흐 민족으로 이전보다 더 분명한 형태로 분화되기 시작했다.¹¹⁾ 우즈베크 민족 그룹이 새로이 정주 문화의 생활양식을 수용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거주 민족들의 역사적 분화는 가속화되었다. 전통적인 유목문화의 형태를 가진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우즈베크 민족이 선택한 문화 양식은 다른 민족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유발하였는데, 남서쪽의 투르크멘 민족과 아시아 스텝 지역의 카자흐, 키르기즈 민족은 유목 문화 양식을 지속하였다.¹²⁾ 차가타이 칸국에서 발원된 ‘차가타이’와 ‘모굴’이라는 명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우즈베크와 카자흐 민족의 전통적 특성은 지금도 전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지크 민족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은 기원적으로 칭기스(Ghenghis) 칸의 후손들이었다. 우즈베크로 대표되는 중앙아시아의 정주민족과 카자흐로 대표되

10) Subtelny, M. "The symbiosis of Turk and Tajik," in B. Manz (ed.), *Central A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pp. 45-61.

11) 몽골제국 시대의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분화 과정에 대해서는 Beartice F. Manz, "Multi-ethnic Empires and the formulation of ident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6 No. 1 January, 2003, pp. 82-90 참고,

12) A. Rashid, *The Resurgence of Central Asia: Islam or Nation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85.

는 유목민족의 분화 과정은 수세기 동안 지속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정착민족과 유목민족의 사회적 공간은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을 지배하던 18세기까지 분화의 과정을 지속했다.

카자흐 민족 지도자였던 카심은 16세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¹³⁾

우리는 대초원의 사람들이다. 우리의 양식은 말고기이다. 우리의 영토에는 정원이나 건축물이 없다. 우리의 오락은 우리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이다.

이러한 언급은 정주 민족의 지도자로 언급된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는 바로 투르크-몽골의 전통적 특성에 더욱 더 가까운 형태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강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썬가 지적하듯, 현대 유럽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언어, 공통의 문화, 인종적 기원과 역사적 장소는 카자흐 민족에 있어서는 부차적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¹⁴⁾ 카자흐와 우즈베크 사이에서 민족 분화의 과정은 특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이 두 민족은 공동의 장소와 배경으로부터 나타났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둘째, 이 두 민족 그룹의 분화는 단지 종족의 기원적 차이성이라기보다는 차가타이 칸국 내부에서의 분리적 성향으로 기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한 기원을 가지는 그룹이 분리되면서, 동일하지 않은 정치적 조직에 속할 때에는 이질적인 민족 정체성의 발전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자흐 민족은 차가타이 칸국 으로부터 분리될 때에 투르크-몽골리안의 유목문화 특수성을 유지하였다. 이는 고유한 민족 기원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¹⁵⁾

카자흐 민족은 자신의 혈통이 차가타이 가계의 방계에 속하거나 왕조에 속하였든지 상관없이 정치적 충성도가 종족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더욱 더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¹⁶⁾ 이러한 종족 그룹에서는 대부분 독립적 리더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연합과 통합은 이루어진다. 노마드 민족 연합체는 의지를 가지고 집단적인 충성을 보이면서 전체의 통합을 이루며, 모든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동의로서만 그 방향성이 설정되며,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조, 혹은 동맹체,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공통의 정치적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노마드 문화는 정치적인 통치 영역에 있어서 상호 관계성의 문화이며, 집단 구성원 간에 동의가 요구되는 정치적 문화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¹⁷⁾

13) Beartice F. Manz, "Multi-ethnic Empires and the formulation of ident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6 No. 1 January 2003, p. 89.

14) Beartice F. Manz, *ibid.* p. 89.

15) 언어나 지역적인 특수성은 투르크-몽골리안이라는 노마드 민족 그룹에게는 이차적인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다. 차가타이와 카작 그룹은 자신들의 분리된 명칭이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원래 거주한 땅으로부터 이동해 나갔다.

16) Beartice F. Manz, *ibid.* p. 89.

17) Beartice F. Manz, "The development and meaning of Chaghatay identity," in Jo-Ann Gross (ed.), *Muslims in Central Asia: Expressions of Identity and Chang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2, pp. 27-45

카자흐 유목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계층 분화를 이루는 요소는 첫째, 가축의 사유화와 둘째, 계보적 혈통이다.¹⁸⁾ 종족적 혈통에서 나타나는 부족 충성도는 정주사회보다는 유목사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중앙아시아 사회 내에서도 정착민족이라는 중심부 지역과 유목문화권의 주변부 사회가 상호 활동이 빈번하였다. 이 중에는 비주류에 속한 유목민족들이 정착 민족의 칸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정착민족의 칸국이 강한 국력을 행사할 시에는 유목민족의 칸국, 즉 카자흐 칸국은 우즈베크 칸 민족을 위한 상업 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18세기 제정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이 시작되기 전까지 반복되었다.¹⁹⁾ 러시아 제국주의 연구의 탁월한 학자인 리예벤은 세계사에서 16세기와 20세기 사이의 대표적인 사건을 기독교 세력과 정주 민족 공동체의 확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무슬림과 노마드 민족, 그리고 무속 신앙을 신봉하는 공동체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러시아는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유럽의 발달된 기술력과 조직력 등이었다. 러시아 제정과 소비에트시기에 러시아의 피정복 민족에 대한 정복은 매우 공격적이고 잔인한 방식이 동원되기도 했었다.²¹⁾

정주문화로서의 우즈베크 민족 그룹에 대해 언급할 때 강조되는 차가타이와 우즈베크는 공통적으로 몇 개의 부족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명칭이 ‘차가타이’와 ‘모굴’ (Moghuls) 이었다. 우즈베크가 정주문명을 받아들여게 된 배경은 아불 카이르 칸이 티무르가 통치하던 호레즘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티무르 제국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그는 자신의 유목부족 중심지로 스르다리아 중류 동쪽에 위치한 시그낙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이 우즈베크가 정주문화를 가지게 되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²²⁾

우즈베크 민족 그룹 내의 히바 칸국, 코칸드 칸국, 그리고 부하라 칸국 등 3개 칸 국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였다.²³⁾ 이 칸국들의 특징은 정주문명으로 대변된다. 이 칸국들의 지도자의 권위는 매우 강력하고 15세기 이후로 각 부족의 자치그룹은 상위 지도자에 종속되었다. 칸 국가 (Khanates)는 중앙아시아의 모든 주요 고대 도시들을 통합시켰다. 그리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이슬람 생활양식을 보존하던 중앙아시아의 각 거주민들을 그 세력권 안에 포함시켰다. 우즈베크 민족그룹은 이미 15세기 티무르제국의 거대한 통치적 영향권 내로 흡수되었고,²⁴⁾ 점진적으로 우즈베

18) 손영훈, “카작 칸국(15-18C)의 사회 구조 - 遊牧社會 封建制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7년 2월.

19) Andrew Philips and Paul James, "National Identity between Tradition and Reflexive Modernisation: the Contradictions of Central Asia, Nationalities Papers, Vol. 3, No. 1, 2001, p. 27.

20) Domic Lieven, "The Russian Empire and the Soviet Union as Imperial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0, No. 4, (Oct., 1995), p. 619.

21) 이러한 측면으로 고찰한 연구서는 Paul Henze, "Fire and Sword in the Caucasus: The 19th-Century resistance of the North Caucasian Mountaineers," Central Asian Survey, 2, 1 (July, 1983), M. Gammer, "Muslim resistance to the Tsar (London, 1994) 참조.

22) 김상철, Ibid., p. 184.

23) M. Haghayeghi, *Islam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참조.

24) A. Rashid, *The Resurgence of Central Asia: Islam or Nation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크 민족들이 칸국의 주도적 지배자로 성장해 나갔다. 타지크 민족도 우즈베크 칸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²⁵⁾

III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역사적 유산

1. 제정러시아의 제국주의 전통과 중앙아시아 정복

제국러시아의 역사적 과거인 모스크바공국은 몽골 제국의 가장 서쪽에 있는 골든 호르드의 역사적 유산의 계승자로, 사실상 몽골의 전통적 지배 체제인 정치적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국가적 유산으로 흡수하면서 제국의 기초를 이루어나갔다. 주지하듯,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붕괴된 이후에 모스크바공국은 로마와 그리스의 제국의 유산을 합법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스크바 제3로마이론’에서 과거의 러시아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제기하고 싶었던 국가통치의 합목적성이었다.

모스크바공국의 영토 팽창의 과정은 특이하다. 오랜 세기 동안, 러시아 민족은 피지배자들의 땅을 점진적으로 지배해 나가면서 이 지역들을 규합하였다. 러시아는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확장의 역사처럼, 책략과 협상 등 양면적 전략을 선택해 나갔다. 그리고 모스크바공국은 비잔틴제국의 합법적 계승자로 스스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몽골의 정치적, 전통적 유산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아시아적 전제 국가인 몽골의 유산은 모스크바공국 시대의 핵심적 역사 유산이었던 것이다. 특이한 것은 모스크바공국의 초기 통치자들은 몽골 제국의 휘장이나 상징물을 이용했다.²⁶⁾ 모스크바공국의 통치자들은 이국의 땅을 정복했다. 이는 러시아 민족의 지리적 경계를 벗어난, 과거에 골든(金) 호르드의 후손들, 즉 몽골의 역사적 유산이 존재하였던 땅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6-17세기 동란의 시기에, 아직도 로마노프 왕조가 창건되기 직전에 러시아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었고 로마노프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서야 17세기 표트르 대제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제국의 시대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하나의 민족, 혹은 하나의 제국이 영토 확장 및 자국의 세력권을 확장하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일까? 러시아가 東으로 지역적인 확장을 이루어 나갔을 때에 과거 이 지역은 몽골의 북쪽 지역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공국 시기에 카잔공국과 아스트라한 공국의 점령이라는 영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복된 땅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땅과 신분, 지역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즉 모스크바공국의 팽창의 시기에 칭기스 칸의 역사적 유산은 완전히 소멸되는

Press, 1994), p. 85.

25) M. Haghayeghi, "Islamic Revival in the Central Asian Republics," *Central Asian Survey*, 13-4, 1994, pp. 251-252.

26) Beartice F. Manz, "Multi-ethnic Empires and the formulation of ident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6 No. 1 January 2003, pp. 90-92.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배 체제 하에서는 새로이 엘리트들이 편입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제국의 시대에 피지배민족의 엘리트들은 과거 몽골 시대의 유산, 즉 유목문화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엘리트들의 서열이 정해지며, 이는 제국이 새로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합법적 유산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의 역사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1731-1854년 기간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스텝 지역이 러시아제국에 합병당한 시기이다.²⁷⁾ 러시아인들은 우즈베크 민족그룹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이 지역 부족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였다. 이 시기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팽창, 즉 최초의 제국적 형태의 틀이 갖추어진 때였다. 제국 확장의 전조 조짐이 나타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정체성은 직접적으로는 형성되지 않고 모호한 형태를 취했다.²⁸⁾ 부하라 칸국, 히바 칸국, 코칸드 칸국 등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당시까지 봉건 영주들에 특혜를 주던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의 근대화를 형성하였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의 두 번째 시기는 롤란드 로버트슨(Roland Robertson)이 언급한 세계화의 상승 ('take off') 국면이라고 부른 기간과 겹치는데,²⁹⁾ 러시아는 1865년과 1881년 사이에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3개의 칸국을 정복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1855-1881)는 일련의 군사 원정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1873년 히바 칸국을 정복하면서 투르크계 칸국의 영토를 정복하고, 1881년에는 카스피 해를 넘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칸국들은 16세기 이후부터 19세기까지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정치, 사회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기 부족성에 두고 있었다.³⁰⁾ 제정러시아는 이후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 지역인 '투르크스탄'을 점령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정복함으로써 표면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러시아의 팽창에 따른 제국주의적 요소가 등장하였는데, 우선적으로 러시아 이주자와 러시아 지식 엘리트들이 전파한 유럽적 이념을 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수용함으로써 나뭇의 민족적 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 초기에 칸국들은 일종의 보호국으로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다. 덧붙여,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운동의 출현으로 이러한 개념이 중앙아시아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문헌 작업 등을 통해 이 지역에 소개되었다. 예를 들면, 1890년대 말 이후로 투르크 언어권의 민족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세력을 펼쳤던 범

27) 이에 대해서는 D. Hiro, *Between Marx and Muhammed: The Changing Face of Central Asia*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5)를 참조바람.

28) A. Rashid, *Ibid.* p. 86.

29) 이에 대해서는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1992) 참조.

30) 이들 칸국들은 상호 불신과 반목으로 러시아의 진출에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최한우, *중앙아시아연구(상)*, 서울:퍼네기, 2003, pp. 241-245.

-투르크주의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³¹⁾

2. 카자흐 민족의 정체성을 통해서 보는 제정러시아의 역사적 유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18세기 군사요새를 건설하면서 과거 몽골 제국의 역사적 공간으로 진입하던 이 시기는 카자흐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의 분화가 많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유럽화의 길을 모색했던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중앙아시아 사회의 내부에 인지되고 있었다. 즉 18세기까지는 적어도 중앙아시아 중심 민족들은 각각의 민족 경계 내에서 일종의 자가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몽골 차가타이 정체성의 전통적 특성을 가장 근접하게 유지하고 있던 카자흐 민족의 정체성은 15세기 이후 어떠한 역사적 전통성과 함의를 간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제정러시아의 역사적 유산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일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 영역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팽창을 시도하던 과정에 카자흐 민족도 식민주의 압력을 받으면서 유목문화는 당시 형성되고 있었던 범투르크주의의 영향과 더불어 새로이 형성되고 있던 카자흐 엘리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러시아 제국이 식민주의 압력을 강화해 나가던 시점에 카자흐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전통성에 대한 카자흐 민족의 역사적, 시대적 인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이다. 유목문화에 대한 역사적 전통성과 더불어 또 다른 그룹의 일단의 엘리트들은 유목문화가 아닌 정주문화 요소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당국도 일부 카자흐 엘리트들에게 카자흐 민족의 전통성인 유목문화에서 정주문화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제기는 카자흐 인의 전통성과 이들이 추구하던 삶의 다양성과는 배치되는 개념이었다. 외부에서 유입된 강력한 제국의 변인 요소가 카자흐 민족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즉 정형화된 실체의 민족 내부로 급속하게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의 변화 앞에 카자흐 지도자 그룹은 어떠한 민족적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새로운 시대가 왔고, 또 새로운 개념의 카자흐 정체성이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일단의 그룹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던 것이다.

알라쉬-오르다당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그룹은 카자흐 사회의 경제적이고 정치적 발전을 희망하였고, 민족 부흥의 국가적 요소로 정주 문화 방식을 고려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카자흐 민족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엘리트들의 국가건설 방식의 하나

31) 이에 관해서 특징적인 내용을 첨가한다면, 범-투르크주의자들은 중앙아시아 내의 타타르 인들을 매우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였는데, 사실상 중앙아시아 내에서 이러한 이념의 전파로 소수 민족들에 해당하는 지식인들은 전통적이고 구체적인 그룹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Andrew Philips and Paul James, "National Identity between Tradition and Reflexive Modernisation: the Contradictions of Central Asia, Nationalities Papers, Vol. 3, No. 1, 2001, p. 27.

라고 할 수 있다.³²⁾ 제정러시아의 역사적 존재 그 자체가 카자흐 유목민족의 전통적 삶의 형태를 변화하게 만든 문화적 상실의 요소로 해석되었다.

제정러시아는 전원생활과 유목문화라는 전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던 카자흐 민족의 생활 관습을 전체적으로 변화시켰다. 카자흐 유목문화는 다양한 역사적 문헌에서 해석되어지고 있으며, 장구한 세월 동안 전원과 유목이라는 일정한 규범적 요소로 공동체 내에서 발전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³³⁾ 효과적인 생태학적 적용 시스템인 목초지는 카자흐 정체성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상호간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응용되었다. 덧붙여, 경제적 활동으로서 정원은 '가장 일반적 정체성'으로서 카자흐의 경계를 구별 짓게 하는 카자흐성과 동등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양한 부족 및 계보가 카자흐 계통 분할의 조직 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목초지의 분배나 유산 분배 등에는 이러한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유목문화의 일정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목 문명은 카자흐의 실제적 문화 공간으로 해석된다. 카자흐 민족의 이러한 특성은 정착 민족의 유형과 변별적으로 발전해나간 문화 요소였다. 즉 정주 거주민들과 유목 민족들의 생활적 기능은 대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카자흐 민족의 자체적 정당인 '알라쉬-오르다'의 핵심 리더인 '아흐메트 바우투르수노프'는 카자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연성이 식민지화를 추구하는 제국에 대해 가장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로 결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창간한 저널인 '카자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있다.³⁴⁾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목격하는 역사적인 발전을 추적하면서, 문화적 센스에 있어서 새로운 이주자들이 토착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면, 후자는 시대의 상황에 흡수되어버릴 것이다. 반면에 상호간에 문화적으로 동등하다면, 그들은 공존하며,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자신들의 민족적 유일성을 보존할 것이다. 오늘날 키르기즈(카자흐)사회의 경제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키르기즈(카자흐) 민족의 존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존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카자흐에서 교육과 문화 발전에 전력투구해야한다. 우리는 카자흐에서

32) 카자흐 엘리트들과 그들의 아젠다에 관한 부분은 Gulnar Kendirbaeva, "We are Children of Alash...", The Kazakh Intelligentsia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in search of National Identity and Prospects of the Cultural Survival of the Kazakh People', Central Asian Survey, Vol. 18, No. 1, 1999, pp. 5-36 참조.

33) Sergali Tolybekov, "Kazakh Nomadic Society in the 17th-Beginning 20th Centuries: politico-economic Analysis, Алматы : Наука, 1971; Нурбулат Массанов, Кочевая цивилизация казахов: Алматы и Москва: Горизонт, 1995.

34) 이 언급은 Saulesh Esenova, "Soviet Nationality, Identity, and Ethnicity in Central Asia: Historic narratives and Kazakh ethnic identity,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Vol. 22, No. 1, 2002, p. 16에서 재인용.

우리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켜야한다. 자신의 문화를 창조하는 데 성공하는 민족에게 자립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떤 측면이든지 제정러시아 시기 이러한 유목문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은 카자흐스탄 언어와 역사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둘러싸고 민족적 강화를 희망하는 엘리트들에 의하여 지속적인 논쟁을 카자흐사회에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배경이 일어났던 상황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 특히 18세기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카자흐 민족에 대한 정복의 시작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카자흐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의 시대적 과제 앞에 엘리트들의 역사적 임무에 대한 다양한 자각에 대하여 고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지배층은 당시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보다 뒤쳐진 중앙아시아의 산업화 단계의 발전을 위해 러시아의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존했다. 대체적으로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인식은 강하게 형성되지 아니했다. 19세기말에 국민들의 대다수는 문맹이었고, 그들은 근대화 과정의 소외자로 남아있었다. 민족국가의 형성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중앙아시아 민족 주체성은 1900년대 초에 인텔리겐차 이외의 영역에서는 폭넓게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민족 주체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의식 있는 엘리트들에 의한 민족국가의 형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도 그러한 과정을 걸어갔다. 당시 중앙아시아의 민족적 인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투르크이즘’과 ‘범-이슬람주의’로 양분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전통적인 특성을 투르크 문화와 이슬람 문화로 대변하는 인식론적 양식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의 엘리트 사이의 전통적인 정체성은 나름대로 견고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공간의 핵심 지역을 중심부라 칭하고, 그 대칭적 의미로 피지배 국가를 일반적으로 주변부로 유럽 근대주의는 점진적으로 전통 속에서 출현하였다. 그리고 근대화와 전통의 형이상학적 갈등은 중앙아시아와 같은 주변부에서 폭력적으로,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이 지역 중심부에서 지속된 러시아제국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한 함의는 심오하다. 중앙아시아에서 근대화와 전통성의 충돌로 지식인들이나 중앙아시아 이슬람 사제들은 근절되어갔다. 엘리트들이 통일된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의 내전 기간에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그룹에서 독립을 선포하였지만, 1920년대 초에 소비에트는 중앙아시아를 재차로 정복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³⁶⁾

러시아제국이 중앙아시아에 남겨놓은 역사적 유산은 어떠한 것인가? 사실상,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하나의 권역권에 존재하였던 제국의 강력한 국가들, 그리고 이념적으로 언급하여 제국주의, 혹은 식민

35) Andrew Philips and Paul James, "National Identity between Tradition and Reflexive Modernisation: the Contradictions of Central Asia, Nationalities Papers, Vol. 3, No. 1, 2001, pp. 27-28.

36) Andrew Philips and Paul James, Ibid. pp. 27-28.

주의는 역사적 전통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지배 민족의 삶에 어떠한 결정적 영향, 즉 제국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제국이 민족들의 전반적인 생활상에 어떤 견고한 이미지를 양산하며, 피지배 민족 혹은 국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인가? 몽골제국과 제정러시아의 경우를 보면서, 제국의 유산은 사회내의 엘리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에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면서 역사적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아시아에서의 제정러시아의 역사적 유산은 중앙아시아의 문화 기호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범투르크주의나 범이슬람주의가 그러한 예이다. 범투르크주의가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투르크민족을 하나로 연결하자는 운동이 오스만투르크에서 강력히 대두되면서, 강력한 제국의 구조를 이루고 있던 러시아와 오스만투르크의 대립적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 지식인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반 러시아 저항의 수단이나 혹은 자신의 민족에게 개화된 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범투르크주의자들을 비롯한 지배엘리트들은 중앙아시아의 민족 국가 건설을 진지하게 숙고했었다.³⁷⁾

IV. 결론을 대신하여 - 제국의 유산, 그리고 민족 정체성

가계나 족보에 대한 충성심은 중앙아시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카자흐와 우즈베크 민족에게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난다. 다만, 몽골제국 시기 이후 민족 그룹의 분화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 충성도를 더욱 더 중요한 국가 건설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 카자흐 민족에게 부족이나 씨족 계급이 이루는 사회적 구조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해당된다. 이는 수세기 동안 진행된 역사적 전승의 축적된 문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민족 그룹의 기원은 유사하지만, 민족들은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카자흐 민족과 우즈베크 민족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 존재했었다. 그것은 세계 제국이었던 몽골의 존재였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차가타이 칸국의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차가타이 칸국의 쇠퇴, 즉 제국의 약화와 더불어 새로운 민족 그룹의 출현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 민족 그룹은 분리되었으며, 각각의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정주 문화와 유목 문화의 유형을 선택했던 것이다. 본고는 몽골제국의 역사적 유산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사회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났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제정러시아라는 또 다른 강력한 제국의 유산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민족, 카자흐 민족의 유목문화의 특징은 이 민족의 전원 문화에 나타난다. 이러한 유목문화, 전원문화(pastoral)의 특색은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의 시대

37) 정세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 제국의 지배, 그리고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지정학적 고찰,” 『쟁점과 연구』 제 3권 2호 (통권 10호) 2008년 여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p. 9.

에까지 역사적으로 전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유목문화의 컨텍스트는 중앙아시아 사회에 존재하였으며, 카자흐 엘리트들은 제정러시아 및 소비에트 체제 속에 카자흐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체적 의미로서의 역사적 과정을 담보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국의 입장에서는 몽골의 전통적 유목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카자흐 등 노마드 민족은 지리적 중심부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변부로, 정체된 그룹으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노마드 문화는 역사적, 지리적 핵심 문명이 아니라,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노마드 민족의 특징은 거대 도시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즈베크 민족그룹에 의해 이른 시기에 수용된 이슬람도 카자흐 민족 등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매우 늦게 이를 수용하였다. 유목민족은 샤머니즘 의식을 가진 이슬람 수피주의자들에 의해 이슬람을 수용하였다.³⁸⁾ 이것이 바로 유목문화의 전통적 특성이며, 이런 관계로 이슬람은 노마드 민족들에 의해 덜 조직화되었고 이슬람의 핵심적 요소보다도 과거의 이슬람 이전의 혼합 종교와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었다.³⁹⁾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즈베크와 카자흐 민족의 영적, 정신적 특성도 개별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제국의 유산은 오늘날 민족건설과 국가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중앙아시아 각 개별공화국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 경로와 그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인지는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 체제의 역사적 유산이 이 국가들에 남겨놓은 잔영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나타나는 제국의 유산에 대한 논증은 여전히 학문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속할 것으로 사료된다.

38) M. Haghayeghi, *Islam and Politics in Central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 77.

39) M. Haghayeghi, "Islamic Revival in the Central Asian Republics," *Central Asian Survey*, 13-4, 1994, pp. 251.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

중앙아시아는 국제관계에 관한 현대적인 학문용어에, 그리고 정치학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정의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정학적 맥락에서 볼 때 본 지역의 범위는 다섯 개의 포스트 소비에트 공화국을 포함한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역사적 충돌, 이전의 행정적 경계의 국경으로의 변화,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의 형성이 ‘중앙아시아’의 현대적 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변수에 관한 논의

1993년 타슈켄트에서 있었던 구소련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다섯 개의 포스트소비에트 공화국을 포함하는 지역을 ‘중앙아시아’라는 단일한 용어로 부르기로 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의안의 기저를 이룬 것이 주로 정치적인 기대와 이 지역 국가들을 위한 단일한 지정학적 축을 규정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과의 외부경계는 주로 러시아제국 및 소련 시기에 획정되었고 대부분 산맥이나 강 같은 자연경계와 일치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을 제외한) 이러한 국경을 열강들의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의 유산으로서 물려받았다.

한편 중앙아시아에서의 지역형성에 관한 논의는 흥미로운데, 그것은 의견의 다양함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지역형성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연구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역범위를 보다 넓게 보려는 경향을 가진 연구자들도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앞에 나타난 도전에 대한 반응이자 이러한 도전에 대한 비전통적인 해답의 모색이기도 하다.

여러 면에서 중앙아시아의 현대적 지정학은 소련 붕괴 이전에 만들어진 범주에 의존하고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그리고 그 밖의 연구자들 대다수는 방법론적으로 서구 연구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을 따르고 있다. 세계의 권역 매트릭스에서 다양한 지리적, 민족종교적, 지정학적 범주를 갖는 중앙아시아는 한 지역으로서, 때로는 (몇몇 미국 연구자들이 규정하듯이 CIS 혹은 ‘신(新)유라시아’의 범위 내에 있는) 하부지역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법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다. 문제는 어떠한 맥락에서 지역을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 정치엘리트의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의 다의성이 인식되었다.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중앙아시아의 몇몇 거대국가들은 새로운 지정학적 (종종 추상적인) 구조의 개념적 불확실성을 이해하여 지역 이웃국 및 외부 주변국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최적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지역형성의 문명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잠재적으로 문화-문명적 요인은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면에서 중앙아시아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해관계의 교차지대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문명적 경쟁의 공간으로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저명한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차오 후아셴은, 중국의 문화와 정치모델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엘리트, ‘특히 이들 국가들의 젊은 세대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초강대국들과 달리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다.¹⁾ 1세기 반 이상에 걸쳐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차오 후아셴은 러시아어와 러시아 매스미디어가 널리 보급된 점, 그리고 이 지역 및 러시아 엘리트 간에 특히 사고방식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없

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²⁾

이 문제에 관한 터키와 이란 전문가들의 견해는 잘 알려져 있다. 문화-문명적 요건은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 대한 터키와 이란의 전략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남쪽 이웃국들과의 관계의 문화-역사적 측면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터키, 이란,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 국가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신생 독립국의 엘리트가 내놓는 수사의 이면에는 위에서 중국 연구자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제시한, 그러한 넓은 공감대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슬람 세계의 발전경향과 그 잠재력,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내부적 경향을 고려하면 이 지역을 이슬람 세계와 가까워지게 할 요인들이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도시민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서구적 가치가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역시 조건적으로 그러한 가치를 서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배적이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재의 엘리트를 포함해 몇 세대가 자란 토양이 된 소비에트-러시아 하위문화가 유럽 문화-문명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긴 했지만 상당 정도 중간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상황의 복잡함, 특히 그 문화-문명적 모호함에 대한 몰이해가 서구가 이 지역 국가들에서 저지른 일련의 전략적 오류의 원인이었다. 웨인 메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획득한 후 미국식 민주주의의 표준을 지향하고 미국의 지도하에 '제퍼슨의 공화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³⁾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과정을 도식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지역형성의 다양한 개념이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그다지 다방면적이진 않지만, 광대한 중앙 유라시아 공간을 지정학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연구자 보가뚜로프(A.Д. Богатыров)와 미국의 유라시아, 특히 중앙아시아 전문가 스타(F.S. Starr)의 견해는 매우 흥미롭다.

보가뚜로프의 견해에 의하면, 중동에서의 미국과 연합국들의 활발한 활동, 중국의 신 '서구' 전략, 인도와 파키스탄의 향상된 역할과 같은 동아시아 '광대한 공간'에서의 국제관계의 새로운 경향이 새로운 지정학적 지역의 형성과 그 결과로서 중동부 아시아라는 새로운 국제관계 하위체계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게다가 러시아 연구자는 중동부 아시아는 '카스피해 동쪽으로부터 중국의 태평양 해안에 이르는 단일한 정치적-전략적 공간'이라고 간주한다.⁴⁾ 보가뚜로프가 자신의 논리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첫 번째 것은, 소련 붕괴 이후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간의 민족인구적, 지리적, 정치적-전략적 '연결'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연결이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안보 부문에 있어서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보가뚜로프의 견해에 의하면, 그 외에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상호의존성은 더욱 굳건해졌다.⁵⁾ 연구자는 구소련 중앙아시아의 안보도 아프간-파키스탄 문제('듀란트' 라인) 및 인도-파키스탄 문제(카슈미르)의 해결⁶⁾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요인은 서부 및 북서부 국경에서의 중국의 활발한 활동이다. 보가뚜로프의 견해에 의하면, 1990년대에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OC)의 형태로 다자적 협력기구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전개했다.⁷⁾ 세 번째 요인은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이다. 네 번째 요인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와 러시아의 '유라시아화', 동(東)유라시아에서의 경제적 협력과 안보문제에 대해 높아진 관심이다. 그리고 동유럽의 서쪽 이웃국들과의 재통합 및 중동부 유럽의 출현과 유사하게 중동부 아시아 역시 두 '구'(舊) 지역의 '결합'의 결과이다.⁸⁾ 이후 2005년 6월 21일

알마티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안보 및 지역협력에 관한 학술회의에서의 발표에서 보가뚜로프는 중앙아시아의 남쪽 이웃국인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여 이 지역을 대(大)중앙아시아라고 불렀고, 이로써 대중앙아시아에 관한 스타의 유명한 개념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개념의 핵심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제적, 문화적 경계를 확장하는 데에 있다.⁹⁾ 2005년 3월에 구체화된 대중앙아시아 개념은 중앙아시아의 지역형성에 관한 다른 개념들에 대한 완전한 대안적 개념이 되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발견되는 의견의 불일치는 주로 연구 방법, 목적, 과제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은 지정학적, 문명적 교차지대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경쟁은 이러한 관계를 지역적 수준에서 반영하고 투영한 것이 되었다. 지역에 대해 ‘애국적인’ 성향을 갖는 중앙아시아 국가 연구자들은 종종 지역적 공통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공간적 단일성의 방안을 모색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관찰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불편함, 특히 각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지정학적 작전의 공간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지정학적 행위자의 분석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정치학은 학문 자체의 영역 밖에서 만들어진 틀과 규칙 하에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의 결과에 따라 구성된, 적지 않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지역의 지정학적 무정형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재분류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개념적, 이데올로기적, 혹은 극히 지정학적인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협소한 정치적 의미에서의 ‘중앙아시아’ 개념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틈새를 찾아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이러한 내용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 개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아주 적합한, 고유하고 분명한 일련의 범주들이 이미 존재한다. 이러한 범주들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육, 문화적 가치, 경제적 하위문화, 행동양식 등은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재생산되고 있기까지 하다. 중앙아시아가 지역적 (하위)복합체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정치학 연구자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는 단지 다섯 ‘스탄’ 국가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의 유사성은 물론 그 차별성까지 결정한 역사-문화적, 정치-지리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복합체이다.

지구적, 지역적 행위자들의 지정학적 개념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관계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호적인 대외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조성과 국제무대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위한 기초건설. 이 지역 대부분 국가들의 대외정치적 수단은 큰 차이 없이 유사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객관적, 주관적 이유가 있었다.

1990년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향은 이 지역상황에 대한 열강 및 대국들의 높아진 관심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의 공급증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안보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러시아, 미국, 중국, 터키, 이란 같은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자에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대외시장으로의 수송로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또한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지역안정의 문제를 염려하는, 일련의 국가들이 더해졌다. 특히 비전통적인

위협과 도전과 연관된, 중앙아시아의 지역안정과 안보문제는 여러 국제협약의 체결과 국제기구의 창설의 기초에 놓인 핵심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국가들이 대안적인 발전모델과 문제해결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여기에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었다. 독립 획득의 시기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는 다양한 양자 및 다자기구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CIS 내, 특히 중앙아시아에서의 국제기구들의 다양함과 넓은 스펙트럼은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적 방향성의 다양함뿐만 아니라 대안적이지 않다면 적어도 유사한, 일련의 정치적 입장들의 모호함까지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슬람에 기초한 통합모델은 이 지역 국가들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투르크 통합의 이념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경제적, 지정학적 이유와 같은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터키는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기구 가입과 그 이후의 이 기구의 활동관행은 이 지역 국가들과 이란, 터키, 파키스탄 같은 경제협력기구 창설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관계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경제 프로젝트가 양자 차원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나마 실현된 일련의 예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서 중국은 처음에는 국경지역의 안보와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한, 그 이후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기구 내에서의 다자간 과정에 참여했다.

소련 해체 직후 미국의 존재는 처음에는 정치-경제적 행위자로서 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2001년 9월 11일 이후에는 군사-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존재를 의미하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활발한 활동은 미국 에너지 기업(그 첫 번째는 이미 소련 해체 이전에 텡기즈 유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 세브론 기업이었다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다) 활동의 이익보호라는 영역과 핵 안보문제에만 한정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구소련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잠재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의 발생을 막는 것,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서의 야망의 가능성을 중립화하는 것, 이란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중국을 억지하는 것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은 미국 정치학자들과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도록 한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국가전략연구소 전문가 루머(E. Rumer)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에게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전략에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역할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미국이 시도하였다. 클린턴은 이전 행정부의 전략과 텔버트 독트린을 거부하였다. 루머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은 ‘안보 매니저’의 역할을 선택해 ‘패권국가’로의 변화를 피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레볼드(R. Legvold)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의 중요한 목표로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전략적 장벽의 건설이 있다. 이러한 장벽에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발트3국,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핵심적인 국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 수준에서 이러한 국가들과 NATO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신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미국에게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미국은 이 공간에서 러시아의 지배나 러시아, 중국, 이란 간의 연합의 구축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한편으로 유라시아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은 러시아와 협력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협력과 대립의 경계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¹⁰⁾

미국 지전략가 브레진스키(Z. Brzezinski)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의 역할은 유라시아에서 ‘지정학적 다원주의’를 유지하고 이 지역의 지정학적 공간에서 러시아의 지배를 막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은 지배자도 아웃사이드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지만, 구소련의 일부인 이 지역의 정세로부터 소외되기에는 너무 강하다는 점으로 인한 것이다. 브레진스키에 의하면, 미국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어떠한 한 강대국도 이 지정학적 공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세계사회가 이 지역에 대한 무제한적인 재정적-경제적 접근권을 갖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¹¹⁾

알려진 바와 같이, 일련의 변화와 기술적 진보의 결과로 전통적인 지정학의 특징을 이루는 개별적인 지정학적 요인들과 개별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낮아졌고, 군사적 요인의 역할은 변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진스키의 의견에 따르면, 송유관과 수송로의 망이 육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중해와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이 지역을 세계경제활동의 거대한 중심지역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때 지정학적 다원주의는 변함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¹²⁾

미국의 지배를 가정하면서 브레진스키는 전례 없는 세 가지 조건이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1) 하나의 국가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다; 2) 세계적인 규모에서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우월한 국가가 비(非)유라시아 국가다; 3) 유라시아가 비유라시아 강대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¹³⁾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지정학적 다원주의의 개념은 소위 ‘5개 외부국’ - 러시아, 중국, 이란, 미국, 터키 - 가운데 우선적으로 첫 세 강대국에 대한 도전을 내포한다. 지정학적 균형상태가 가능하고 할 수만 있다면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 국가들은 국가적, 지역적 안정과 안전보장의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지역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따르면 브레진스키의 결론이 전적으로 옳은 것으로 판명된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차이와 일련의 의견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게는 핵심적인 국제 안보문제에 대한 러시아, 중국, 이란 간의 입장과 견해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예측할 수 있고) 현재 알 수 있다. ‘지정학적 다원주의’ 개념의 관점에서는 이 세 강대국들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브레진스키의 지정학적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그려졌겠지만, 현실은 이와는 다소 다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된 것은 상당 정도 미국 자신의 (지정학적) 정책에 의한 것이다.

특히 미국 연구자 올코트(M.B. Olcott)의 견해에 따르면, ‘많은 미국 정치가들은 몇몇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인 의존성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들 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관계를 맺고 개별적인 지정학적 하위지역으로서의 중앙아시아의 해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¹⁴⁾ 올코트는 미군주둔이 이 지역 국가들의 대외정책의 차별화와 지역적 일체감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간주한다.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및 카프카즈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이 양자관계에 기초하여 미국이 에너지 안보와 군사협력 부문에서 자신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조성하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접근법과는 반대로 미국과 중국은 양자관계와 더불어 상하이협력기구(SOC),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등의 다자간 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일련의 행위가 성공적이었음을 인정하고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전술적 방식을 비판하면서 올코트는 미 정부당국과 서구 전체가 수송과 통신, NATO 등을 통한 군사-정치협력 부문에서 지역적 프로젝트를 활발히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¹⁵⁾

미국 연구자 힐(F. Hill)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에게 중앙아시아의 안보문제는 그 자체로서 목표라기보다는 대외정책, 그 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외정책의 연장일 뿐이다.’¹⁶⁾ 미국의 일정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힐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은 결코 될 수 없는 주요 행위자로 남아 있다.¹⁷⁾

보다 광역적인 맥락에서는 ‘미국이 터키와 이란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협력, 특히 새로운 송유관 건설 부문에서의 경제적 협력과 이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여타 관계의 발전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유라시아에서의 미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가장 잘 부합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재정지원에 미국이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는다’는 브레진스키의 견해에는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¹⁸⁾

국제안보 부문의 영국 전문가 엘리슨(R. Allison)의 견해에 의하면, 러시아는 지역 패권국이고 모스크바의 정책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영국 연구자가 간주하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취약성은 ‘냉전’ 시기 제3세계 국가들의 취약성을 연상시킨다.’¹⁹⁾

엘리슨은 만일 중앙아시아(혹은 중앙 유라시아)가 주변지역이라면 이는 중앙아시아에서의 통합과정을 대륙의 다른 지역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적합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러시아 같은 지역 패권국에 가담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CIS의 다양한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지역 패권국이 지지하는 지역주의를 낳았다. 이와 함께 지역 패권국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구에 대해 깊은 의무감을 지는 것을 피하게 된다. 엘리슨이 간주하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책임이 모스크바, 서구 국가, 중국에 분담되었기 때문에 CIS 대(對)테러센터의 활동은 비효율적이 되었다. 패권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문제에 대한 지역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균형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²¹⁾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모스크바가 호소하는 다방면성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양자관계를 은폐하고 있다고 엘리슨의 생각은 타당하다.²²⁾ 이러한 경우에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이 주요 중심세력이 참여하지 않는 다자간 구조나 합동군사구조보다는 방위구조나 양자협정을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제도화가 미약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역연합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이 지역 국가들의 협력은 전통적인 대외방어의 형태보다는 국내 안보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만한 점이 있다. 엘리슨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들의 정권의 안전보장에 있다.²³⁾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아직도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 무엇보다도 국내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이와 함께 이 지역이 국제무대에 새로운 독립국들이 출현하던 시기에 여러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었다는 이란 연구자 라흐마니(M. Рахмани)의 의견에는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²⁴⁾

이런 식으로 사회와 국가의 안보의 측정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이전과 같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중앙아시아의 역사과정은 지역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세력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루는 국가와 민족 발전의 방향성은 종종 이웃 강대국들의 영향 하에 내부적 충돌 및 모순으로 귀결되었다. 세계적 발전과정의 역동성,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행위의 다양한 성격과 방향성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은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과 안정

을 보장하는 부문에서의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독립국가들 및 이웃국가들의 주도적인 활동의 대부분은 안보와 무역-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지역적, 국제적 안보체계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출발점이 되는 요인들이다. 이 지역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지리문화적 공간은 역사적 동질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었다. 지금은 이 지역을 외부환경과 구분하는 데 유리하고 실질적인 통합의 강력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은 처음처럼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이며, 이때 이해 당사자들이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엘리트가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국익의 개념에 의존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번역:김태연 박사)

-
- 1) Чжао Хуашен. Китай, Россия, США: интересы, позиц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 2004. - № 5. - С. 136.
 - 2)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140.
 - 3) Уэй и Мерри Э.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дет не такая уж большая игра // Analytic. - 2001. - № 3. - С. 31.
 - 4) Богатуров А.Д. Центральнo-Восточная Аз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е // Восток. - 2005. - № 1. - С. 102.
 - 5)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103.
 - 6)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104.
 - 7)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105.
 - 8)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106.
 - 9) Starr F.S. A Greater Central Asia: Partnership for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The Central Asia - Caucasus Institute and Silk Road Studies Program. - Washington, DC: Joint Transatlantic Research and Policy Center, 2005. - 38 p.
 - 10) Лаумулин М. Стратегия и интересы Запад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тарая» и «новая» геополитика // Независимый обозреватель стран Содружества, - 2003. - № 3. - С. 45-59.
 - 11) Бжезинский З. Великая шахматная доска. Господство Америки его гео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императивы. М.: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8. - С. 168.
 - 12)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178.
 - 13)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234.
 - 14) Олкотт М.Б. Второй шанс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Москва-Вашингтон: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2005. - С. 268.
 - 15)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270-272.
 - 16) Хилл Ф.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комплексного подхода к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Казахстан в глобальных процессах. - 2005. - № 2. - С. 23.
 - 17)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24.
 - 18) Бжезинский З.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242.
 - 19) Аллисон Р. Регионализм как измер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структур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Казахстан в глобальных процессах. - 2004. - № 1. - С. 48.
 - 20)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50.
 - 21)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52.
 - 22)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53.
 - 23) Указанное сочинение, С. 61.
 - 24) Рахмани М. Государства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 чаше весов возможности и вызовы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 2003. - № 2. - С. 156.

중앙 아시아의 대외 경제 정책

이스칸다르 울다셰프
(Iskandar YULDASHEV)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 경영대학
연구원

The continuous changes in the geopolitical picture of the world,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USSR led to the forming of radically new geopolitical situation in the Central-Asian region which includes Kazakhstan, Kyrgyzstan, Tad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At present time the processes of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from outlying region into the region where increasingly more persistently intersect the interests of a number of the large powers and other international sectors are in the active stage. The social and economic reforms, directed toward the forming of the bases of the open economy and to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principles of management, revealed great possibilities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entral Asian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for the purpose of the maximum use of advantage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effective adaptation to the conditions of globalization.

Key words: 중앙 아시아, 대외 경제 정책, 세계 무역, 통합

서론

세계가 나뉘는 게임의 법칙에 의해 크게 두 개의 경제 진영으로 분리됨에 따라,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가들은 엄격한 정치적 제한에 더하여 다른 세계와의 통합으로 가는 길목에 극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장벽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구 소련 공화국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 «노동의 사회적 분리» 및 «생산 특화»의 기본 목적은 절연된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었으며, 이 시스템은 구성 국가들의 자족을 위한 중앙 계획적 아이디어에 기반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 만의 통합적 연합체, 즉 경제 상호 원조 회의(CMEA)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경제 절연 정책은 개별 국가 경제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 내의 경제적 효율성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하였다.

소비에트 연방과 이른바 «국가경제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구 사회주의 공화국들, 특히 러시아의 경제와 통합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구 소련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대외 경제와 대외 무역에서 최소한의 역할 만을 수행했을 뿐이며, 세계 시장에서 실제 수요도 없었고, 그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여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대외 경제 활동을 포함한 상품의 생산 및 이어지는 분배와 재분배 과정은 중앙 계획 원리에 의해 통제되었다.

대외경제 교류는 모든 나라에서 경제 개혁의 촉매제이다. 그러한 교류는 시장 구조와 메커니즘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초기 자본 축적, 경쟁 환경 조성, 비즈니스의 시장 동기 부여, 국제 경영 노하우로의 편입에 기여한다.

1991 년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을 획득함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의 길에 서게 되었다.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해마다 괄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앙 아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 경제 관계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의 지속적 변화는 이미 중앙 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가져다 주었다. 현재 중앙 아시아는 주변 지역에서 유라시아 공간의 지정학적 좌표 체계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다. 지역의 입지 강화는 그 새로운 지정학적 역할을 결정 짓는 일련의 요인들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라는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상당 부분의 안전과 안정에 전략적 의미의 영향력을 가진다.

둘째로, 중앙 아시아와 지역 전체에서 각 국가의 발전 방향은 유라시아 대륙의 광활한 공간에서 힘의 균형 전망을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다.

셋째로, 세계적으로 집중된 이 지역의 천연 자원, 특히 탄화 수소 원료가 있다. 그 원료를 획득하고자 천연 자원 부족 국가인 터키, 파키스탄뿐 아니라 비교적 자원 부국인 중국, 유럽 국가들,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연료 에너지 자원과 자원 운송로 확보는 지역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 정책 뒤에는 구체적인 지정학적 목적이 자리잡고 있다.

넷째로,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교통 관문의 교차점에 위치하였으며, 넓은 교통통신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란을 거쳐 페르시아 만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중국을 거쳐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 (유다노프 Y.I. 2000, p. 72-80)

«국제화, 세계화, 경제 생활의 탈국가화(transnationalization)»와 같은 용어들은 모두 국가의 세계 경제 참여를 의미한다. 국가가 세계 경제에 참여하는 수준은 일련의 지표들로 측정되고 있다.

우선, 세계 무역 참여 지표가 있다. 이것은 수출 쿼터, 즉 GDP 에 대한 수출 비율로 주로 산출된다. 수출 쿼터 수치는 국가 경제에 수출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 또한 수입 쿼터로도 결정이 되는데, 때로는 수출과 수입을 합하여 총액을 국가 GDP 와 비교하고 이 수치를 대외무역 쿼터라 하기도 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 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는 절대 지표가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국민 1 인당 상품과 용역 수출액이다.

국가의 세계 경제 참여도를 분석할 때는 국제 무역뿐 아니라 생산 요인의 국제 흐름도 살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국가의 참여도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1) 국가 GDP 대비 해외 투자 자본 누적액, 2) 국가 GDP 대비 외국 투자 누적액, 3) 국가 연간 투자 대비 외국 자본의 비율, 4) 국가 GDP 대비 국가 외채 비율, 5) 상품과 용역 수출 소득 대비 외채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

기타 생산 요인의 국제 흐름에 대한 국가 참여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총 노동 인구 대비 외국 인력의 비율 또는 자국 노동 인력의 해외 노동자수, 국내 등록된 총 특허와 면허 대비 외국 특허와 면허의 비율, 기술과 관리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 규모 이다.

세계 경제가 단일한 재화, 용역, 자본, 인력, 지식의 시장으로 변하는 과정을 세계화라 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국제화보다 더 높은 단계이며, 국제화의 향후 발전 모습이다. 수만 개의 다국적 기업에게 세계는 단일 시장이 되고, 모든 지역들이 경제적 활동 무대가 된다. 학자들은 세계화를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세계화란 «사람과 국가 간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이 급격히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것이며, 이동 정보 공간, 세계 자본/상품/용역 시장의 형성 과정에서,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자연 환경 문제들 및 인종적 종교적 분쟁, 그리고 안보의 국제화 이슈들을 통해 드러난다. (N. 이바노프, 2000, p.15). «세계화는 현재 경제 및 정치에 있어서는

국제화(통합)의 가장 높은 국면에 도달해 있으며, 문화에 있어서는 잉태기에 와 있다»(V.페프티예프, 2000, p.39).

중앙아시아 지역의 세계화 과정은 되돌릴 수 없으며, 이 지역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현대 발전의 일반적 경향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경제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의 채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활용해야 한다. 경제 발전 방향의 획일성(주로 원료 중심)을 극복하고, 자체 국가 산업 생산 및 국가 투자 분야의 전반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정보기술과 과학집약적 경제 분야의 발전, 국민 불평등 개선,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 및 지속 발전, 지역 내 및 구 소비에트 지역 전체에서 통합 교류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당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신 산업화 국가들의 유형을 따른 수출 중심 발전 모델의 채택이다. 그것은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노동 분배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비교 우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표 1.

중앙 아시아 국가 수출액 (백만 USD)

	1992	1995	2000	2005	2007	1992 년 대비 증가율
카자흐스탄	1398	5250	9140	27849	47755	34.2 배
키르기스스탄	76	409	527	942	N/A	...
타지키스탄	111	749	936	908	N/A	...
투르크메니스탄	908	1881	2500	N/A	N/A	...
우즈베키스탄	869	3109.0	3700	5408	8992	10.3 배

출처: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4;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1/ Una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독립 국가 연합 15 년 (1991-2005) 통계집: 통계집; 카자흐스탄 통계청; avestagroup.com

표 2.

중앙 아시아 국가 수입액 (백만 USD)

	1992	1995	2000	2005	2007	1992 년 대비 증가율
카자흐스탄	469	3807	5050	17352	32756	69.8 배
키르기스스탄	70	522	555	1135	N/A	...
타지키스탄	132	810	675	1329	N/A	...
투르크메니스탄	30	1364	1400	N/A	N/A	...
우즈베키스탄	929	2892.7	2810	4091	5236	5.6 배

출처: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4;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1/ Una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독립 국가 연합 15 년 (1991-2005) 통계집: 통계집; 카자흐스탄 통계청; avestagroup.com

중앙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1991 년 전까지 독자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였고, 국제 관계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혁 이전 기간의 대외 무역 통계는 얻을 수가 없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통해 1992 년부터 점진적으로 세계 노동 분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표 1 과 2 를 분석해 보면, 모든 국가에서 수출과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 증가 지표는 1992 년부터 2007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0.3 배, 카자흐스탄의 경우 34.2 배에 이르렀다. 동일하게 수입 증가 지표도 해당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5.6 배, 카자흐스탄의 경우 69.8 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경제에서 이 지역 국가들의 위상 강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2 년과 대비하여 추산된 빠른 대외 무역 증가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개혁 이전 기간, 즉 1992 년 이전까지 대외 무역 수준이 더욱 높았다. 다만 그러한 대외 관계의 방향이 구 소련 공화국 내 노동 분배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중앙 아시아 신생 독립 국가들의 대외 무역 수준을 평가할 때는 1992 년을 비교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일정 정도 왜곡된 면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화 과정에 편입되면서 이루어온 성취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대외 무역의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 특성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대외 무역의 판도가 변화되었다. 무역 교류국들이 구 소련 국가들에서 선진국들로 변화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대외 무역의 품목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세기 90 년대 초반에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 무역 구조가 주로 원료 상품에만 한정되었다면, 현재는 완제품 및 반제품의 비중이 성장함에 따라 식료품, 원료, 연료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다시 말해, 더 효과적인 대외 무역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개방성을 강화하고, 세계화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역 정책과 지역 협력

독립 발전의 초기 몇 해 동안에는 생산과 투자 규모 감소, 급격한 인플레이션, 심각한 예산 적자, 대내 및 대외 부채의 빠른 증가로 인하여 대외 경제 활동의 자유화와 대외무역 교류 증가가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경제 유지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 그에 더하여, 개혁 초기의 중대한 문제인 지역 국가들의 소비 시장 충족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해결되었다.

개방 경제의 기초 형성과 시장 경제 원리 도입을 목표로 한 사회 경제 개혁은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노동 분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계경제 교류의 세계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열어 주었다. 그 결과, 이 지역 국가들의 대외 무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 무역 활동의 전체 규모의 빠른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중앙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무역 규모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모두 축소되었다.

표 3

중앙 아시아 국가 들의 대외 무역 동향
(백만 USD)

	1995		2000		2005		1995 년 대비 2005 년 증가율 %	
	계	CA 국가	계	CA 국가	계	CA 국가	계	CA 국가
거래액								
카자흐스탄	9057	1371.7	13852	1228.8	45201.2	1084	499.1	79.0
키르기스스탄	931	555.7	1058.0	606.1	1773.3	408.4	190.5	73.5
타지키스탄	1559	1002.6	1459.0	600.1	2239.0	484.9	143.6	48.4
투르크메니스탄	3245	445.5	4291		6143.9*	189.3	189.3	42.5
우즈베키스탄	6001.7	1036.4	6212.1	775.0	9500.1	795.3	158.3	76.7
중앙 아시아 총액	20793.7	4411.9	26872.1	-	64857.5	2961.9	311.9	67.1

출처: 독립 국가 연합 15 년 (1991-2005) 통계집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함: 통계집. /CIS 국가 통계집.
- 모스크바, 2006. *2003 년 자료

위 표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1995 년-2005 년 사이에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총 무역 규모는 미화 20.7 백만 달러에서 64.9 백만 달러로, 3.1 배 증가하였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총액이 수입 규모를 뛰어 넘는 것이 대외 무역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되었으며, 이는 해당 기간에 무역 수지 흑자를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분석 기간에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총 수출액이 3.4 배 증가하였다면, 총 수입액은 2.8 배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수출에 의한 수입 상쇄 수준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1995 년 121.3% 였고, 2005 년에는 145.8%였다 (표 1 과 2).

1995-2005 년 동안 카자흐스탄(수출 5.3 배, 수입 4.5 배), 투르크메니스탄 (1.9 배, 1.8 배), 우즈베키스탄(1.7 배, 1.4 배)에서는 수입 대비 수출의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정반대 경향이 나타나서, 수입 성장률이 수출 성장률을 앞질렀다.

수출-수입 총액의 가장 빠른 성장률은 2001 년부터 관찰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 상품 시장에서 세계경기가 유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분석 기간 동안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대외무역 교류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초기 몇 년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무역이 좋지 않았는데, 특히 1992 년 이전까지는 매우

긴밀했던 CIS 국가 간 무역 교류의 긴축이 두드러졌다.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무역 활동의 대상은 세계 다른 나라들로 변화하였는데, 그 원인은 중앙 아시아 국가의 시장보다 국제 시장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었다.

분석 기간에 대외 무역 자유화로 수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중앙아시아 국가 간 1995 년 대비 2005 년의 상호 무역액은 평균 33% 하락하였으며, 수출은 31.5%, 수입은 34.5% 하락하였다.

상호 무역액이 가장 빠르게 하락한 곳은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으로 각각 57.5%와 51.6%였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각각 21%, 26.5%, 23.3%).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통합 과정의 가속화와, 공동 시장의 형성이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단일 시장을 설립하고 이를 통합적 기반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객관적 가능성과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공생의 결과로 상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그 결과 가장 다양한 통합 형태로 경제협력체의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사회-경제 안정성과 국가간 공감대 유지가 필요하다. .

셋째, 공동 인프라 구축 - 공동 전력망, 석유-가스관, 철도 사업, 도로 교통망, 공동 정보 분야 - 이 필요하다.

긴밀한 산업 협력, 풍부한 자원, 교통 및 에너지망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전망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 외 중요 요인으로서는, 1) 지역 내 모든 종류의 광물/에너지/농업 원료의 자족 능력, 2) 협조와 투자가 있을 경우 짧은 기간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완제품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생산 잠재력, 3) 전문 및 교육 인적 자원, 견고한 과학기술 잠재력, 4) 비교적 낮은 노동력 비용, 5) 수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의 공동 최적 사용과 환경 보호 등의 가능성(알리모프 R.M. 2005, p. 464).

이 모든 것이 중앙 아시아 정부 간 경제 교류 강화를 위한 객관적인 전제가 된다.

중앙 아시아 국가의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그러한 공화국간의 교류 확립이 관심사가 되는데, 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생산자가 등장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생산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가장 실질적인 것은 확장된 재생산의 사이클 속에서 경제가 기능하도록 하는 것과, 개혁 및 투자 활성화, 중요한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과학 잠재력 강화이다. 공동 시장 조성의 목적과 과제는 수출 잠재력의 효과적인 실현을 고려해야 한다.

대내 경제 분야에서 공동 관심사는 통합 과정의 법제화와 효과적인 법률 준수 메커니즘의 구축이다. 과학-기술과 생산 잠재력의 유지 발전 수단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일과 사회 복지의 최대 성장을 위해 자유 시장 경제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아울러 일차 수행 과제로는 경제 구조의 문제점 개선, 재활용 제품 생산 촉진, 고용 안정이 있다. 시급한 요소는,

경제가 국민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국민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정신적 및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라시아에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통합은 경제 성장과 지역 국가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객관적이며 획기적인 과정일 것이다.

독립 이후의 발전 방향

독립 이후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경제 발전은 3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1991-1995)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감소 경향이 나타난다. 대체로 1991 년 대비 1995 년의 GDP 생산 감소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18.4%, 카자흐스탄 31%, 키르기스스탄 45%, 타지키스탄 59% 이다.

이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GDP 생산의 감소는 이미 그 전에 구 소련 경제를 덮쳤던 기존 경제 교류의 붕괴, 경제 위기 심화 현상과, 시장 경제에 맞춘 경제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것이다. 그에 더해 경제 개혁 이전과 초기에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루블화에 기반하였고, 이 시기의 거시 경제 정책은 러시아에 의해 결정되었었다. 국가 경제 전반이 상당 부분 러시아의 결정에 좌우되었던 것이다. 인플레이션 또한 급작스럽게 몰아 닦쳤다.

두 번째 단계(1996-2000 년)에서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잠재력의 점진적인 회복이 관찰된다. 경제 개혁의 주된 결과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발전 초기 몇 해 동안 GDP 생산 감소 경향이 해소되었다.

거시경제 안정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경제 개혁 정책 시행과 투자액 증가는 중앙 아시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타지키스탄 제외) GDP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전년도 대비 1996 년의 GDP 상승률은 카자흐스탄에서 0.5%, 키르기스스탄 7.1%, 우즈베키스탄 1.7% 였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1996 년-2000 년 GDP 동향을 보면 세계 금융 위기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경제 발전 과정을 둔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1997 년 말에 이르러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억제되고, 경제 성장 및 재생산 확대 궤도로의 진입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 개혁의 우선순위는 제도 정비, 시장 인프라 개혁, 생산 혁신, 기업 구조 조정, 수출 잠재력 확대, 외자 유치 증가 분야로 넓혀지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국내 잠재력의 취약점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향한 혁신 기술 및 신생 분야 도입과 기존 산업의 현대화와 관련 있는 국가 전략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개발과 실현에 다방면으로 특별 외자를 유치함으로 상되었다.

그러나 눈에 띄게 안정되던 경제는 1998 년 금융 위기와 뒤이은 채권 시장 위기, 은행 시스템 마비, 국가 환율 폭락, 인플레이션 급등, 국민 소비 능력의 저하로 멈추어 섰다. 세계적 경제 위기는 중앙 아시아 국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 자유화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던 국가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더 큰 고통을 겪었다. 1998 년 GDP 생산액 감소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나타난다.

생산 감소 및 1998 년의 금융 위기의 기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한 후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1999 년과 특히 2000 년에 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킬 수 있었고, 실제 국내총생산과 기타 기본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었다.

세 번째 단계(2000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부터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나타난다.

자유 경제정책과 주로 연료-에너지 분야의 거대 외국 자본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국민 생활 수준 손실을 8.8% 내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것에 기여한 것은 또한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카자흐스탄 인구 증가율이 낮았던 점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인구는 1990 년-2005 년 기간에 10.1% 감소하였는데, 동시에 지역 전체에서는 동일 기간에 인구 증가율이 13.5% 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 성장은 많은 부분 대외무역의 원료 부문에 의존해 있었고, 과학 기술 발전은 아직 동인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중앙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많은 종류의 산업 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 주요 분야의 물적-기술적 기반이 악화되어가고 있었고, 일련의 경제 분야에서 주요 기금의 물리적,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혁신 프로젝트와 기술은 매우 초보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외국 자본의 직접 유치 정책을 위해 투자 정책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결론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는 중앙 아시아는 유라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향하는 나뭇의 «관문»이다. 동쪽에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있고, 남쪽에는 아프가니스탄, 근동 국가들, 그리고 기타 이슬람 정부들이 있으며, 서쪽과 북쪽에는 카프카즈, 터키, 유럽, 러시아가 있다.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 변화 방향은 상당부분 전세계적인 힘의 균형에 좌우될 것이다. 중앙 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지역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세계 발전의 축으로 여겨지는 전체 유라시아 대륙의 힘의 지정학적 균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베드린체프 A., 미르자하자예프, Sh, 1997, p.129-133).

중앙 아시아 국가 발전 3 단계에서 경제 지표들이 매우 인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수출액에서 천연자원 비중이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선택된 생산 발전의 방향은 고수할 필요가 있다. 중앙 아시아를 공동이익과 수요가 결합된 단일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통합의 기초는 자립적이고 보호된 공동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망 아래 전면적인 무역-경제 협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상품생산자에 대한 공동 지원, 단일 경제 공동체에서의 기업활동을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수 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다양한 민족의 역사적 공통성,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 전통, 혈연관계, 등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분열시키는 것은 과오가 될 수 있다.

물론 중앙 아시아에는 아직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발전 동향과 경제 성장 안정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이것은 무역-경제 협력 발전의 필수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지역의 긴급하고 첨예한 문제들은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스스로의 상호 공조를 기반으로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물론 온전한 공동 시장의 조성은 유럽연합의 경우에서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 시장의 기초 밑그림은 이미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중앙 아시아 공동 시장 창출의 전제와 기본 우선 순위, 그 형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과제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가 되었다.

- 지역 경제 협력 동향을 고려하고, 공동 시장 조성 과정에서 중앙 아시아의 통합 과정 발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확인한다. 정부간 상호 공조의 법적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분석을 시행하고, 정부간 다자 협력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의 보완을 위한 기존 협정과 조치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 중앙아시아 공동 시장의 형성 및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한다. 특히 중앙 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연구한다(공동 통신, 교통 시스템 개발, 국경 지역에 자유경제지대 창설, 투자 제도 및 주요 조세 종류와 규모 단일화, 자치주체 상품의 가격과 관세 조정 절차와 공동 문제 해결, 국가 통화 상호 교환성 보장, 광대한 환전소 체계 구성, 이주 합법화, 분쟁 예방 노력)

- 지역의 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간 협력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한다. (우즈베키스탄과 지역의 타 국가들의 협력 우선 순위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수, 다양한 경제 잠재력, 외국 자본 유치 경쟁, 전매, 교통 통신 인프라와 석유가스 부문 및 다국가 통과 강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수자원개발단지 등의 개발 결정에서 상호 동의 부재)

- 러시아, 미국, 중국, EU 및 한국,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일본의 입장과 지리경제적 관심사를 지역(아프가니스탄 유치 포함)의 통합 과정 발전과 기술 혁신 전망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지역 공동 시장 형성에 관한 전략적 목표와 과제를 기본 분야들, 즉 경제, 환경, 과학기술, 정보 분야에서 심도 있게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공동 관심사에서 비롯된 지역 국가들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을 정의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번역: 유 승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조교수)

참고 문헌

1. Алимов Р.М.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Общность интересов. //Р.М. Алимов. – Т.: «Шарк», 2005. – 464 с.
2. Бедринцев А., Мирзахаджаев Ш.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усиления инте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Ж.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7 г. №12. с.129-133.
3. Гулямов С., Расулов Д., Хачиев Г. Экономика Узбекистана и стран СНГ: Цифры и комментарии. Т.: Фан. 2001.
4. Домбровски П.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осле при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Доклад CASE, 1999.
5. Иванов Н. "Глобализация и проблемы оптим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 "МЭиМО", № 2, 2000, стр. 15
6. Пефтиев В., Черновская В. "Развивающийся мир: глобализация или регионализация?" - "МЭиМО", № 7, 2000, стр. 39
7. Расулев А., Бедринцев А. Перспективы партнерства: углубл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государст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б. науч. тр. Транзитная экономика. - Алматы, IDK. 1998.
8. Ушакова Н.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правления трансформации. // Ж.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2003 г.. №3.
9. Хидояттов Г.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и решения. // Ж. Xalqaro munosabatlar 2000. №2. с. 53-64 .
10. Юданов Ю.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 новый фаворит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 Ж.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0 г. №3, 4. с. 72-80.
11.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геоэкономика, геополитика, безопасность. Т.: «Шарк». 2002. – 208 с.
12. Экономика СНГ: 10 лет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и интегр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М.: Финстатинформ. 2001.- 420 с.
13. 15 лет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1991-2005):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СНГ. - М., 2006.
14. Экономика Узбекистана: аналитический обзор за 2005 год. Т.: 2006. - №4. – 97 с.
15. Програм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USAID и МФК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www.ifc.org/centralasia
16.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www.stat.uz